

9. 다섯 가지 물질

金(금) 木(목) 水(수) 火(화) 土(토)가 하늘에 있는 것은

五星(오성)*이 되고

땅에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물질이 된다.

쇠로는 그릇을 만들고

나무로는 집을 짓고

곡식은 흙에서 자라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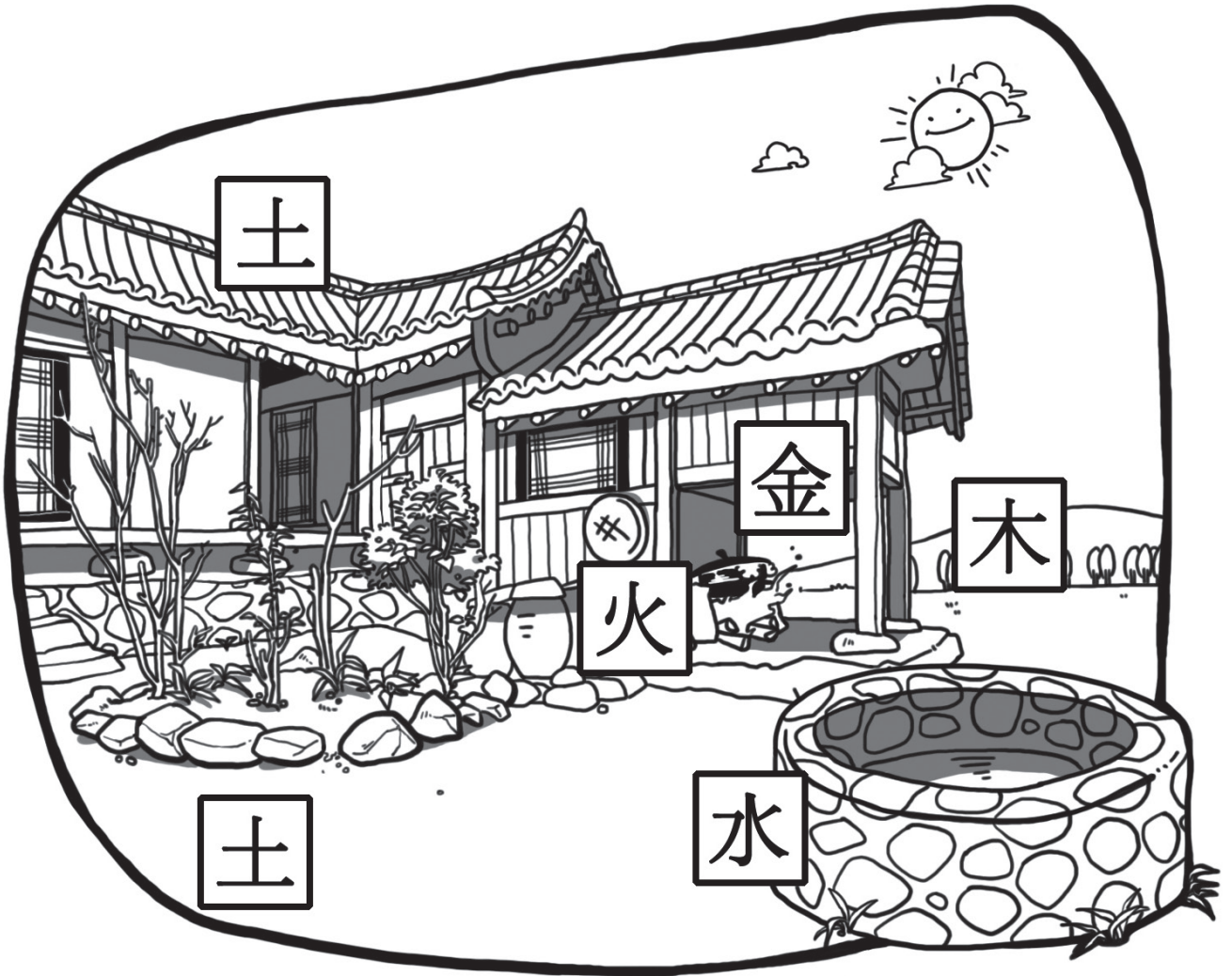
물과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무릇 사람이 날마다 쓰는 물건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아닌 것이 없다. (『계몽편』 「지편」)

*五星(오성) : 水星(수성)·金星(금성)·木星(목성)·火星(화성)·土星(토성)의 다섯 행성

○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의 내용은 다섯 가지 물질에 해당하는 쇠[金]·나무[木]·물[水]·불[火]·흙[土]을 소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물체와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 책상·타이어·지우개·우산 등은 물체이고, 나무·고무·철·플라스틱은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이 물체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도 물질을 대체로 다섯 가지로 나누어 쇠[金]·나무[木]·물[水]·불[火]·흙[土]이 그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쇠로 낫그릇이나 솔과 같은 그릇을 만들고, 나무로 된 기둥이나 서까래로 집을 지었으며, 흙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생산하였지요. 또 물과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끓이거나 만드는데,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지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의 성질이 사물에 따라 다 들어있다고 봐요. 앞에서 소개한 ‘옛날에 사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에도 그런 성질이 있는데, 가령 水星(수성)·金星(금성)·木星(목성)·火星(화성)·土星(토성)의 다섯 떠돌이별이 그런 성질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대와 중세 서양에서는 우리와 달리 물질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바로 흙[土]·물[水]·공기[氣]·불[火]이 그것이에요. 거기는 나무와 쇠를 빼고 대신 공기를 넣었죠. 만물은 이 네 가지 물질이 섞여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어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동양이나 서양 모두 물질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에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다섯 가지나 네 가지 물질을 분류했지만, 자연을 탐구하여 이해하려고 힘썼던 점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글을 읽고 다섯 가지 물질을 말해 보시오.

()

2. 다음 <보기>의 물건을 아래의 물질로 분류하여 보세요. 양쪽에 해당되면 양쪽 모두에 쓰세요.

<보기> 술, 낫그릇, 벽돌, 솥, 서까래, 맷돌, 호미, 쟁기, 마루

가. 쇠:

나. 나무:

다. 물:

라. 흙:

3. 다음은 다섯 가지 물질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녹이거나 찍어내거나 막아서 이기는 경우입니다. 알맞은 물질을 써 넣으시오.

쇠 → () → () → 흙 → 나무 → 쇠

4. 다음 질문의 답을 다섯 가지 물질 가운데서 말해 보세요.

가. 물은 무엇을 자라서 생겨나게 하나요? ()

나. 물건이 불에서 타고나면 재가 생기는 데, 이 재는 다섯 가지 물질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

5. 자연물 가운데서 앞의 다섯 가지 물질 외에 또 있으면 말해 보세요.

()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쇠	나무	물	불	흙	별
한자	金	木	水	火	土	星
음	금	목	수	화	토	성

2. 다음 □안에 알맞은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水星():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나. 木星():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다. 土星(): 고리가 있는 행성

3. 다음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보세요.

가. 日요일 전 날은 □요일입니다.

나. 月요일 다음 날은 □요일입니다.

다. 7月 10일이 월요일이라면 7月 26일은 □요일입니다.

4. 다음의 글에서 한자의 뜻을 ()안에 쓰시오.

땅에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물질이 된다.

金()으로는 그릇을 만들고

木()로는 집을 짓고

곡식은 土()에서 자라는데

水()과 火()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무릇 사람이 날마다 쓰는 물건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아닌 것이 없다.



선덕여왕의 지혜

일연 스님이 엮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영묘사라는 절의 옥문지(玉門池)라는 연못에 겨울철인데도 많은 개구리들이 나와서 3~4일 동안 울고 있었어요. 나라 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선덕여왕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왕은 급히 날쌌던 군사 2천 명을 뽑아 西쪽 교외로 가서 女根谷(여근곡)을 조사하여 찾아가면 반드시 적의 병사들이 있을 것이니 가서 덮쳐서 죽이라고 시켰어요.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여근곡을 찾아가니 과연 백제 군사 5백 명이 그곳에 와서 숨어 있었으므로 모두 잡아서 죽였어요. 또 백제 장군 오소는 경주 南山 고개 바위 위에 숨어 있었으므로 포위하여 없앴고, 뒤따라 오는 군사 1300여명도 모두 물리쳐 없앴어요.

그 뒤 신하들이 선덕여왕에게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알았냐고 여쭙었어요.

“개구리의 성난 모습은 병사의 모양이며, 연못의 이름에 옥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여자의 생식기를 뜻하니, 여자는 陰(음)이고 음은 그 색깔이 白色이고 白色은 또 西쪽 방향이므로 군사가 西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여러 신하들이 그 지혜에 깊이 감탄하었어요.

여근이란 여자의 생식기의 다른 말인데 여근곡이란 여자의 생식기를 닮은 골짜기란 뜻이지요. 앞의 옥문지와 연결이 되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신라의 西쪽에서 온 군사들은 당연히 백제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陰(음)과 白과 西쪽으로 연결이 될까요? 陰陽(음양)이론에서 白色과 西쪽은 음이에요. 또 다섯 가지 물질의 분류방식으로 보아도 쇠[金]-가을-白色-西쪽-코-매운맛-폐장-비린내와 관계되는 점을 이용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렇게 사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지식을 갖고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론을 굳게 믿었던 증거예요.